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Science and Technology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Science and Technology

한 개의
시험관은
전 세계를
뒤집는다.

과학의
승리자는
모든 것의
승리자다.

다 같이
손잡고
과학조선을 위해
분기하자.

1934년 4월 19일, 제1회 과학데이 기념식.
빼앗긴 땅에서 조선의 과학기술인들이 외친 구호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을 택했고,
‘과학의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과학의 역사는
민족운동이자 문화운동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대중과학 강연을 펼치며
과학기술의 힘이 있어야 민족의 자립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외쳤습니다.

과학기술의 힘은 그로부터 한 세대 후,
한강의 기적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노벨상 대신 조국을 택한 유치과학자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를 택하도록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
어린이가 원하는 장래 직업,
과학기술자 31%로 가장 많아
”

“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필요한 인물,
과학기술자 65.6%
”

국민들은 과학기술인들과 함께
과학강국의 꿈을 꾸었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기틀을 닦기 위해 최
선을 다한 과학기술인들과
산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기능인들은
부족한 자원과 악조건 속에서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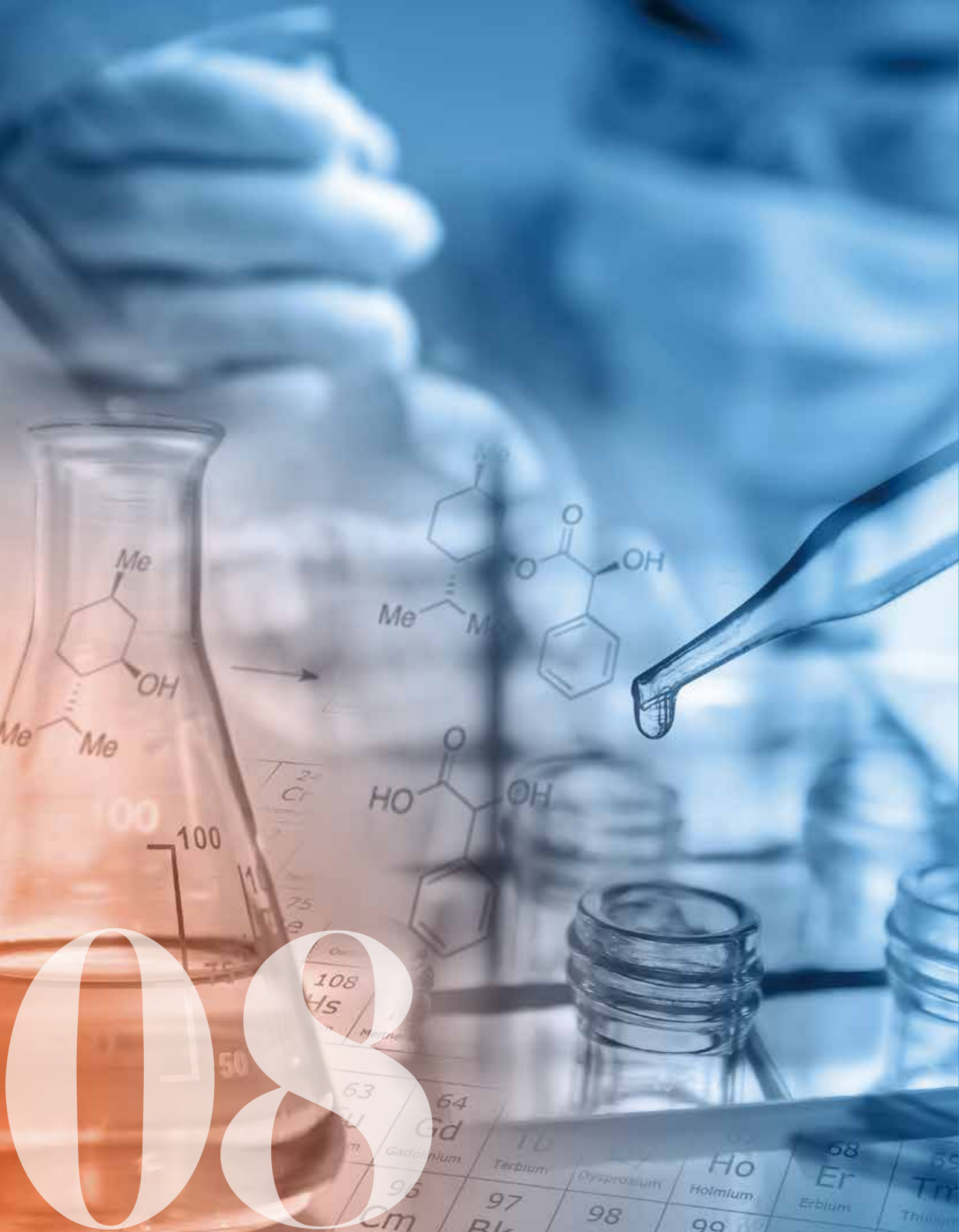
대한민국 과학기술 역사를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이 이어갑니다.

세계적인 연구성과로 국민들의 긍지를 드높인 과학자,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기술인,
그들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하여
경험과 지식을 우리나라 과학유산으로 계승하고,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과학기술인들의
업적과 발자취를 들려줄 계획입니다.



contents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10
 - 해외사례 12
 - 사업연혁 14
 - 추진체계 16
 - 사업방향 17
-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 기본자격 및 지정기준 18
 - 심사·지정절차 20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24
- 과학기술유공자 활동 지원 26
- 과학기술유공자 지정현황 28
- 기대효과 30



“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긍지를 노래한 과학기술인,
이제 대한민국이 화답합니다

”

Part 01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 개요
-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 개요

추진배경

과학기술인들이 국가 경제·산업 발전과 사회 문제 해결에 공헌해 왔으나,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높지 않고 과학기술인들 역시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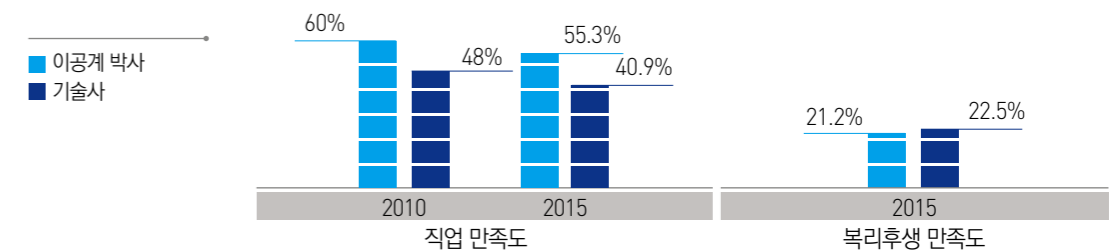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학기술인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51.3%)하나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21%) 또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15.2%)고 인식

자료출처 : KISTEP, '16

이공계 박사 및 기술사 등 현직 과학기술인들의 전반적인 직업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공계 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자료출처 : (구)미래창조과학부·KISTEP, '10~'15



정부는 그간의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시책을 보다 강화하고, 특히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 12)」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예우 및 사회적 활동지원 등 '과학기술유공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긍지를
노래한
과학기술인,
이제 대한민국이
화답합니다

해외사례

과학기술인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예우·지원 현황은?

중국,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인의 명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한 과학기술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종신 직책인 ‘원사(院士)’에 대해 부부장급(차관) 대우 및 예우 제공

· 회원 규모 | 중국인 777명, 외국인 82명 등 859명 (‘18.7월 기준)



· 국가고급인재 특별지원계획(‘12, ‘만인계획’)에 따라 리더급 인재에게 ‘국가특수지식인재’ 칭호 수여, 특수지원비(최대 100만 위안) 지급 및 주식·퇴직연금 인센티브 제공



고경력 과학기술인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 보조교사 활동 지원



주요 국가 행사에 과학기술인 초청 및 예우, 시상

· 프랑스 | 행사 시 과학한림원 회원을 고위직 관료보다 상석에 배치
· 회원규모 | 정회원 및 준회원 349명, 외국인 준회원 124명 등 473명 (‘18.7월 기준)

· 스웨덴 | 한림원 회원 입장 시 왕실 기립, 한림원 회원 착석 후 왕실 착석 등 예우
· 회원규모 | 정회원 460명, 외국인 준회원 175명 등 635명 (‘18.7월 기준)

· 독일 | 과학기술 진보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매년 12월 연방대통령이 독일 미래상을 시상하며 이를 독일 공영 TV에서 방송

기타 | 주요 거리·시설에 과학기술인 이름 부여

프랑스	마리퀴리 거리(Avenue Marie et Pierre Curie)	폴란드	코페르니쿠스 거리
	아인슈타인 거리(Avenue Albert Einstein)		
	닐 보어 거리(Boulevard Niels Bo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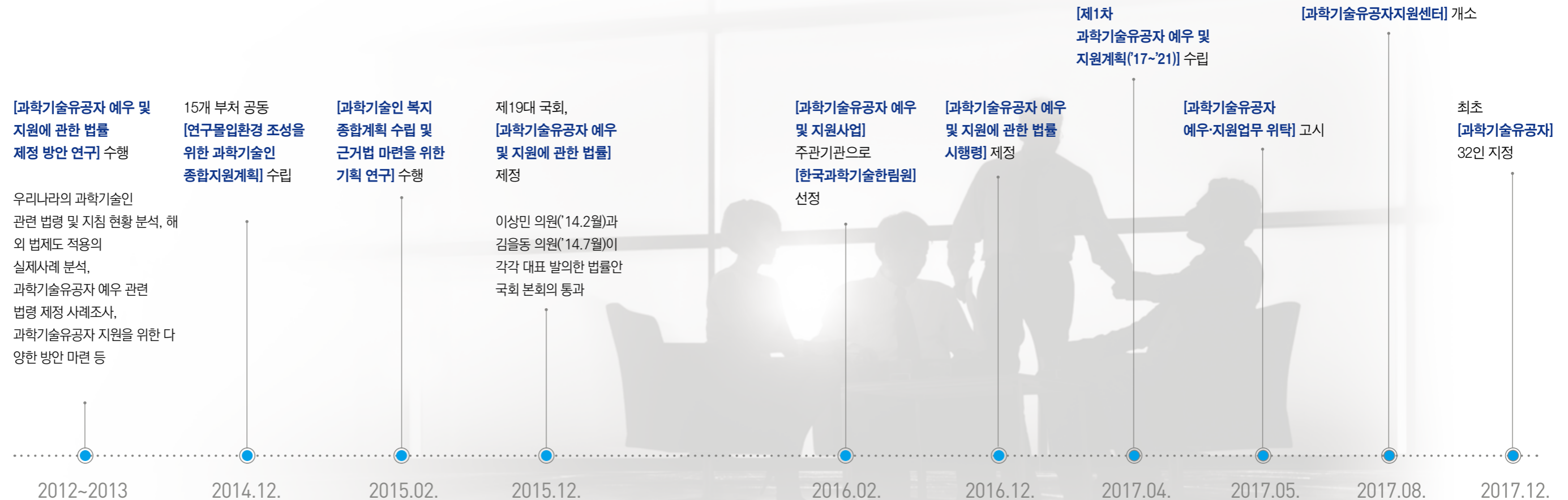


지적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2002년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연구개발과제 코디네이터로 기업 수요조사, 연구개발 동향 조사·분석, 연구성과 사업화 등 참여

·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시니어 봉사단 사업을 통해 개도국 기술전수를 위해 1년 2회 파견·지원

사업연혁

국가적 차원의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인 예우 정책을 마련해 연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자 정부 및 국회, 과학기술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심도 있는 정책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HISTORY

추진체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고 과학기술유공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업무위탁기관(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운영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는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상시발굴,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관리, 예우 및 활동 지원, 홍보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등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총괄 지원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업방향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비전으로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국민의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ISION

비전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 제고• 국민의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 강화
중점 추진 과제	<div>지정·관리</div> <p>국민이 공감하는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및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심사 생애업적을 중심으로 공정한 심사 및 엄격한 검증▷ 발굴·관리 상시·상하향식 후보자 발굴 및 사후관리
	<div>예우·복지</div> <p>과학기술유공자가 감동하는 예우 및 편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우·의전 품격과 격식을 갖춘 예우 및 의전▷ 복지·편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편의시설 혜택 확대
	<div>활동지원</div> <p>과학기술유공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지속적인 연구·기술개발 및 국제교류·협력 지원▷ 교육 과학기술분야 교육·강연 및 저술·번역 지원▷ 기업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도 지원
	<div>문화기반</div> <p>과학기술유공자가 존경받는 과학문화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인식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업적 홍보 및 과학문화 확산▷ 지원체계 개인별 맞춤형 지원·협력 체계 구축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기본자격

이학·공학 등 분야 및 이와 관련된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과학기술인

※ 사망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망자로 한정

지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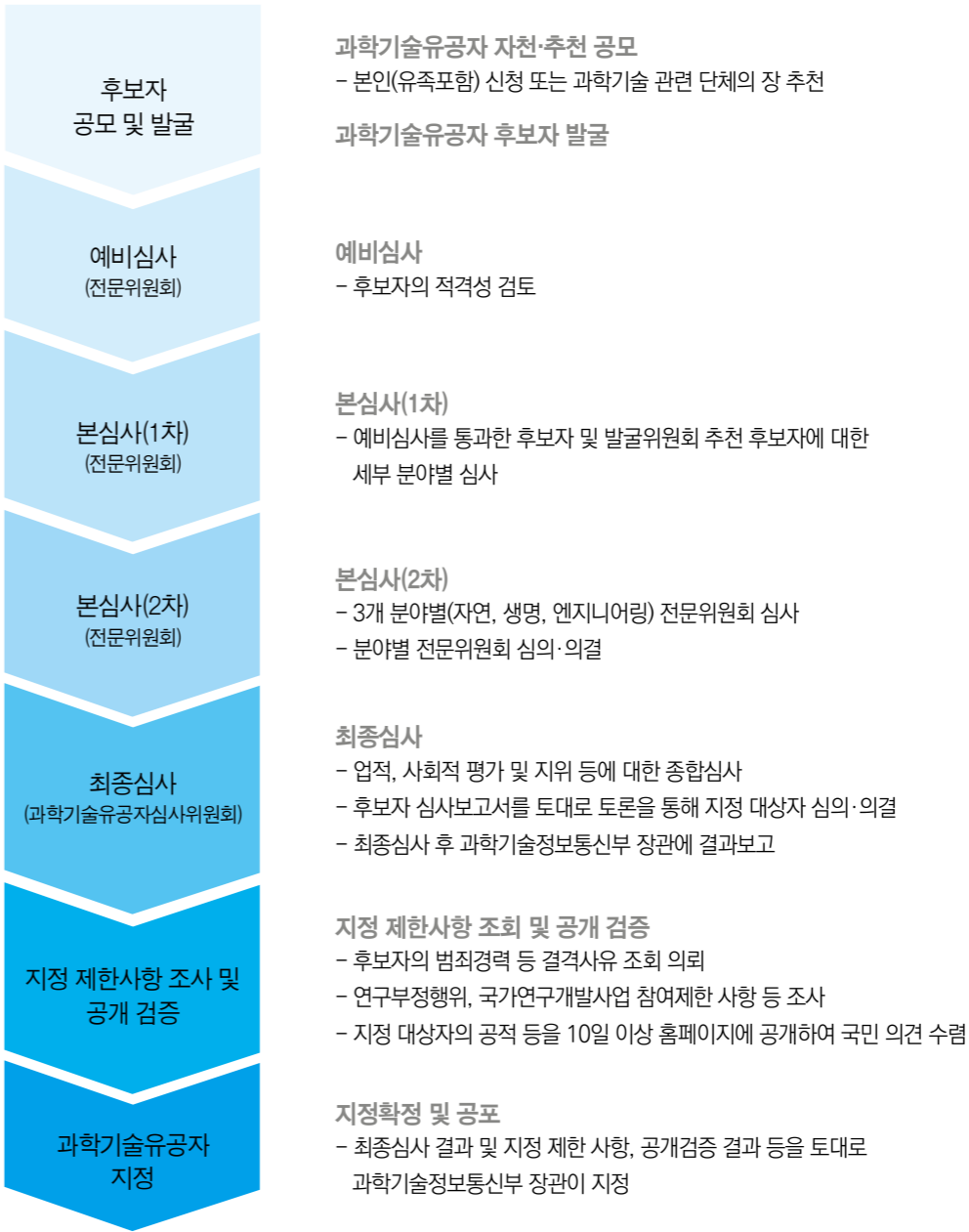
- 1 —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 2 —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일 것
- 3 — 새로운 발견이나 원리 규명을 통하여 연구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 4 —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학문적 성과를 달성한 사람일 것
- 5 — 장기간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큰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일 것
- 6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위의 5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일 것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제외

심사
·
지정절차

국민이 공감하는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및 발굴을 위해 생애업적을 중심으로 공정한 심사 및 엄격한 검증을 실시합니다.

분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자연, 생명, 엔지니어링 등 3대 분야와 이와 관련된 세부 분야로 나누어 심사
위원회	산업계·학계·연구계를 대표하고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심사위원회	산업계·학계·연구계를 대표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기준·심사방법,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심의
전문위원회	분야별 30명 이내의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후보자의 적격성 검토 등 예비 및 본심사 수행
심사	예비·본심사 및 최종심사, 공개검증 및 지정 등 4단계 심사·검증 절차 마련
검증	동료평가(peer-review), 한국연구재단 및 NTIS 등의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후보자의 업적·성과, 결격사유 등 검증





“

금지과 사명감으로 일어선 대한민국 과학기술,
예우와 존중의 공감대로 또 다른 도약을 기대합니다

”

Part 02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 과학기술유공자 활동 지원
- 기대효과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과학기술유공자에게 품격과 격식을 갖춘 예우 및 편의를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인 명예의전당 현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액대상자의 사진 또는 흉상, 인적사항(성명, 성별, 출생년도, 출신지 역 등), 공적내용 등과 업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반 자료 등을 청소년 및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시하게 됩니다. 명예의 전당은 국립과천과학관 내 설치되고, 첨단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과학 기술유공자의 업적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주요 국경일 행사를 비롯해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 과학의 날 등 주요 과학기술 행사에 초청해 의전상의 예우를 제공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유공자와 가족을 초청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과학기술유공자증서 수여식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주거시설, 사무시설, 체육·문화시설 등에서 편의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유공자에게 사이언스 빌리지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과학기술유공자 라운지’ 등 과학기술유공자 교류 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며, 과학기술인공제회 제휴 휴양시설과 복지시설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논문 등 업적 홍보

과학기술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그 성과와 업적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이해가 용이하지 않으며, 과학기술 성과들이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에 비해 유공자 및 그 공적에 대한 평가와 인지도는 낮은 편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알릴 수 있도록 체계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훈록을 발간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공자의 성장과 업적에 대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고위급 과학기술정책 소통채널로서 정책당국 간 정례 협의회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유공자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심의·자문기구의 위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고문(보좌관)’ 등으로 위촉을 추진합니다.

출입국 심사 우대

학술회의 참석 등 이동성이 높은 과학기술유공자들에 대해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출입국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입국 우대카드는 최대 3인까지 동반 이용이 가능하며, 인천국제공항의 패스트트랙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유공자 증서의 발급, 과학기술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 제작비 지원,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합니다.

금지
시명감으로 일어난
대한민국 과학기술,
예우와 존중의
공감대로 또 다른
도약을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유공자 활동 지원

과학기술유공자들이 전문성을 토대로 지식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시행합니다.

과학기술 조사·연구	과학기술유공자의 축적된 지식·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도전적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과제 참여를 지원합니다.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창업단계에 있는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유공자들이 관련 기관의 멘토링 전문가로 참여하고 유공자의 격에 맞는 지위를 부여합니다. 또 과학기술유공자들이 가진 전문성을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등에 활용, 산업계 경쟁력 제고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책연구과제의 기획·평가 및 전문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강연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과학기술유공자들에게 대학 및 출연연구소 강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후학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과학고, 과학영재학교 등 과학기술 교육·강연에 참여토록 지원합니다.

과학기술 분야 저술 또는 번역	과학기술유공자들의 과학기술 관련 저술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출판해 보급할 계획이며, 과학기술정보조사·분석활동의 참여기회를 제공합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식 및 경험, 적정기술을 개도국에 전수·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이 국제협력과 글로벌 역량 강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유공자와 신진 과학기술인 간 학술적 교류	과학기술유공자와 차세대 젊은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강연과 토론을 하는 ‘세종과학기술인대회’를 연례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과학기술유공자 멘토 활동을 지원하여 신진연구자에게 동기부여와 경력경로 설정 지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학기술 분야 국제교류·협력	과학기술유공자들에게 외국과학기술인과의 교류, 국제심포지엄, 국제공동연구 등을 지원하여 과학기술 민간 외교의 중추적인 창구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지와
시명감으로 일어난
대한민국 과학기술,
예우와 존중의
공감대로 또 다른
도약을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유공자 지정현황



권이혁
서울대 명예교수
(1923~)

우리나라 예방의학과 보건학의 토대를 세운 의학자. 교육행정을 수립하고, 보건복지 행정과 보건산업발 발전시키는데 기여함



故김동일
서울대 교수
(1908~1998)

한국화학섬유계의 선구자. 인견(레이온)을 개발하여 울한화학섬유 인견공장을 건설하고,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함



故김수지
이화여대 명예교수
(1942~2016)

간호 지도자 양성과 간호교육 발전을 이끈 한국 최초의 간호학 박사. '사람돌봄' 이론으로 간호계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호스피스 케어 교육과 확산에 기여함



故이원철
국립중앙관상대 초대 대장
(1896~1963)

우리나라 천문학과 기상학의 토대를 세운 천문기상학자. 한국 최초의 이학박사로 독수리 자리 메타별이 맥동변광성임을 증명하였으며, 천문기상분야의 인재양성과 제도 확립에 기여함



故이윤학
UBC 명예교수
(1922~2005)

'리군'(Ree Group) 이론으로 세계 수학계의 주목을 받은 수학자. 해방직후 국내 수학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의 국제화에 기여함



故이재성
서울대 명예교수
(1924~2016)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발전을 주도한 화학공학자. 구미시 화학공학 교육과정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석탄, 정유, 원자력, 대양열 등의 에너지연구 성과로 경제발전에도 기여함



이창건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원장
(1930~)

우리나라 원자력 과학기술의 개척자. 한국형 원전개발을 선도하였으며, 원전설계 고유 기술기준 제정으로 한국형 원전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



故이태규
KAIST 명예교수
(1902~1992)

노벨상 후보에 오른 이론화학자. '비뉴턴 유동이론'(라-아이링 이론)을 발표하고, 화학 분야에 양자역학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화학 연구와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함



故김순경
탐뎀대 명예교수
(1920~2003)

한국의 화학 연구발전을 원천지원한 이론물리화학자. 화학을 물리학으로 접근한 '군론'(Group Theory)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제1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포항공단(포스텍) 설립에 기여함



故김재근
서울대 명예교수
(1920~1999)

조선강국을 건설한 1세대 조선공학자. 표준형 선박 설계로 기술자람에 기여하고, 선박 품질검사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거북선을 비롯한 조선군선 연구로 한국 선박의 역사를 집대성하였음



민계시
현대학원 이사장
(1942~)

세계적 조선해양기술을 구현한 조선해양공학자.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해양플랜트 등 선박해양 설계기술을 개발하고, '월선 엔진', 발전시스템, 산업용 로봇 등의 개발로 국내 중공업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함



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
(1928~)

유형성 출혈열 병원체인 한탄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를 발견한 의학자. 국산 신약 1호인 유형성 출혈열 백신('한타박스')과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



故이휘소
페르미가속기연구소 초대 이론물리부장
(1935~1977)

'한국의 오펜하이머'로 불리는 이론물리학자. 게이지 이론의 재규격화와 참(charm) 쿼크 탐색방법을 제시하여 이후 여러 노벨상 수상업적의 토대가 되었음



정길성
건국대 전) 총장
(1941~)

축산농가의 희망을 제시한 우리나라 동물생명공학의 창시자. 체외수정과 수정란이식기술을 국내 최초로 확립하여 형질전환 등 첨단동물생명공학 및 시험관아기(난자)기술 구축에 기여함



정창희
서울대 명예교수
(1920~)

지층연구로 석탄자원을 확보한 지질학자. 한반도 지질과 층서의 확립에 독보적인 업적을 이루고, 석탄층의 지질도 작성과 매장량 연구로 경제성장에 필요한 석탄산업 육성에 기여함



故조백현
서울대 명예교수
(1900~1994)

우리나라 근대 약학교육과 연구의 선구자. 농화학, 토양학, 영양학을 개척하여 농학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통식품의 과학화로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함



박노희
UCLA 석학교수
(1944~)

연구와 교육행정으로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치의학자. 구강암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UCLA 치과대학을 미국 최고로 육성하였으며, 한국, 중국, 일본, 세르비아 등에서 치과대학의 연구발전과 개혁에 기여함



故석주명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부장
(1908~1950)

'조선적 생물학'을 추구한 나비 학자. 나비 15만 마리를 통해 처리하여 한국 나비를 248종으로 정리하고, 우리말 나비 이름 짓기로 나비 연구에 민족적 가치(조선적 생물학)를 부여하였음



故안동혁
한양대 명예교수
(1906~2004)

중화학공업으로 경제성장 기반을 닦은 화학공학자. 공업용수 조사를 전국의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상공부장관 재임시 자금(Fund), 에너지(Fuel), 비료(Fertilizer)의 '3F 성공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함



故염영하
서울대 명예교수
(1919~1995)

한국 전통 범종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규명한 공학자. 보신각 신종, 석굴암 대종, 해인사 종을 제작하였고, 전통 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으며, 공작기계, 금속재료, 주조, 열처리 등 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함



故조순탁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1925~1996)

우리나라 이론물리학의 토대를 세운 통계물리 학자. 불츠만 방정식을 발전시킨 '조-울렌백' 이론을 발표하고, 국내 최초 1.5 MeV 싸이클로트론 입자가 속기 건설을 주도하여 기초과학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함



조완규
서울대 전) 총장
(1928~)

생명과학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이끈 생명 과학자. 발생생물학 등 기초과학 분야의 개척, 바이오산업의 육성, 교육·과학 행정의 수립에 기여함



故최순달
KAIST 명예교수
(1931~2014)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을 개발한 전기공학자. 우리별 1~3호 발사와 최초의 우주기술벤처(세트레이아) 창립을 주도하고, 전자통신기술연구소 초대 소장으로서 TDX 교환기를 개발하여 전화 1천만대 보급에 기여함



故최형섭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초대 소장
(1920~2004)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를 세운 과학기술 행정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대덕 연구단지 조성, 과학기술 행정기반 수립, 개발도상국으로의 한국과학기술 발전모델 전파에 기여함



故한구동
서울대 명예교수
(1908~2000)

우리나라 근대 약학교육과 연구의 선구자. 식생활과 위생 연구로 약학 근대화 기반을 조성하고, 생약(천연물) 연구분야를 개척하는데 기여함



故우장춘
농업과학연구소 초대 소장
(1898~1959)

우리 식물을 풍성하게 만든 유전육종학자. '종의 혼합' 이론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여 다원의 진화론을 보완한, 우리 입맛에 맞는 벼추와 무를 개발하였고, 재주감금사업을 일으켰으며, 씨감자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우량종자 개발과 보급에 기여함



윤덕용
KAIST 명예교수
(1940~)

우리나라 첨단 재료공학의 토대를 세운 1세대 재료공학자. 다결정 재료의 계면 이동과 입자성장의 원리를 규명하였고, 산학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함



故윤일선
서울대 명예교수
(1896~1987)

우리나라 근대병리학 교육과 연구의 선구자. 의학교육에 연구시스템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한국인 의사단체인 조선의사협회를 결성하였고, 최초의 우리말 학술지인 조선의료를 창간하여 서양의학 연구의 토착화에 기여함



윤중용
삼성전자 전) 부회장
(1944~)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세계 1위로 이끈 엔지니어 출신 전문경영인. 4G D램과 CDMA 개발로 한국을 반도체 통상 강국으로 견인하고, '특허경영'에 의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故한만춘
연세대 명예교수
(1921~1984)

전력산업의 기반을 닦은 전기공학 박사. 220/380V 수압을 위한 정계근거를 제시하고, 한국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 '연세101'을 제작(문화재 등)하여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함



故허문회
서울대 명예교수
(1927~2010)

'동일버'를 개발한 작물육종학자. 삼원교잡 육종기술로 통일벼를 개발하여 세계 최고의 수율로 주곡자금을 가능하게 하였고, 일본 벼의 한반도 전래설을 입증하였음



故현신규
서울대 명예교수
(1911~1986)

우리 산을 무르게 가꾼 임목육종학자. 해충과 추위에 강하고 생장과 재질이 좋은 리기테다 소나무와 신지에 적합한 현사나무를 개발하여 국가 조림사업에 기여함

금지
사명감으로 일어난
대한민국 과학기술,
예우와 존중의
공간대로 또 다른
도약을 기대합니다



금지
사명감으로 일어난
대한민국 과학기술,
예우와 존중의
공간대로 또 다른
도약을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 01 국가안보적 측면에서의 희생에 대한 보상(보훈)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국가유공자제도와 달리 과학기술인의 특성에 맞는 예우와 지원 제공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이를 중심으로 각종 예우 정책과 사업을 연계·통합 실시함으로써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의 효과를 높여갈 것입니다.
- 02 과학기술유공자를 선정함으로써 후속세대의 역할모델이 될 존경받는 과학기술인상을 제시하고, 또한 일반국민들에게 유공자 및 그의 업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 03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품격 있는 예우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들의 명예를 높여갈 것입니다.
- 04 과학기술유공자들이 전문성을 토대로 지식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이 조기 사장되는 것을 막고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무(Noblesse Oblige)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위상을 강화할 것입니다.

사업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T. 02-2110-2785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T. 031-710-4623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koreascientists.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T. 02-2110-2785 F. 02-2110-0241

<http://www.mist.go.kr>



대한민국과학기술유공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경기도 분당구 돌마로 42(구미동) 3층 사무처

T. 031-710-4623 F. 031-726-7909

<http://www.koreascientists.kr>